



정용진 부회장의 배추밭 비하인드 영상



마켓컬리 CF에 출연한 김슬아 대표



이건준 BGF리테일 사장이 카카오투 '머신129'에 출연했다.

/BGF리테일

“대표님이 왜 거기서 나오세요?”

# 예능서 망가지고 CF웃음벨... 소비자 곁으로 다가서는 CEO

유통업계 CEO 자사 홍보 앞장  
친근한 이미지로 브랜드 신뢰도 ↑  
사소한 오해도 리스크 확대 우려

유통업계 최고 경영자(CEO)들이 직접 나서서 자사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대중 앞에 얼굴을 비추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감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그룹 내 사업 홍보 전면에 나서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계열사 제품을 홍보하고, 최근 인수한 SSG랜더스 야구단 관련 게시물을 올리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는 것.

앞서 이마트 공식 유튜브와 스타벅스

계정 '스벅TV'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정 부회장은 제품 홍보 외에도 평소 취미인 요리하는 영상이나 맛집을 소개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이진준 BGF리테일 사장은 카카오투 웹예능에 출연하며 대중 앞에 섰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카카오투 오리지널 웹예능 '머신129'에서 이 사장은 강호동과 딱지치기 승부를 벌였다.

'머신129'는 CEO와 대결을 통해 강호동이 이기는 경우, 해당 기업이 카카오투TV 구독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약속한 경품을 카카오투로 선물하게 되며, 강호동이 질 경우 카카오투를 통해 기업 광고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의 예능 프로그램

이다.

최근들어 유통업계 CEO들도 카메라 앞에 서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친근한 CEO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브랜드 전체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SNS 소통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 CF 출연 BGF리테일 이진준 사장 예능 참여**

또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젊은 층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

장보기 모바일 앱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도 TV CF를 통해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셋별배송과 파격적인 혜택

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와중에 유일하게 난감해하는 CEO의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낸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기업 CEO들의 친숙한 모습을 브랜드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CEO들의 좋은 이미지는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도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은 유통업계 특성상 CEO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영향력이 큰 만큼 부작용도 있다. 자칫 사소한 실수나 오해가 ‘오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음식 사진에 쓴 글을 놓고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정 부회장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우려

과 가재 요리를 올리면서 “잘가라 우럭 아 니가 우럭의 자존심을 살렸다 미안하고 고맙다” “가재야 잘가라 미안하고 고맙다”고 글을 적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정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관련 발언을 따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드는 생각을 적었을 뿐,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은 좋지만, CEO의 언행은 기업 전체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효과가 있는만큼 위험 요소가 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원성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기업·자영업자 대출 1400兆 돌파... 사상 최대치 경신

한은 1분기 산업별 대출금 분석  
잔액 1435조 8000억 집계  
“일시상환 재취급 등 대출영향”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이 1400조원을 넘어섬에 따라 이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서비스업 대출이 많이 늘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143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 대비 42조1000억원 증가해 전분기(+27조7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더 확대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1분기(+51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한은 관계자는 “전분기 일시상환 자금의 재취급과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지난 2년간 산업 서비스별 대출 증감액) 단위:조원

구분	'19.1/4	2/4	3/4	4/4	'20.1/4	2/4	3/4	4/4	'21.1/4
전산업	19.6	22.2	20.5	24.1	51.4	69.1	37.8	27.7	42.1
제조업	6.5	4	1.9	0.1	14.8	17.2	5.8	-2.2	7.1
서비스업	9.9	16.2	16.1	22.7	34	47.2	28.9	28.7	31.1
도·소매업	4.5	6	4.9	5.1	9.1	12.4	6.1	5.3	7.5
숙박·음식점업	1.1	1.8	1.5	1.6	3	6.4	1.4	2.3	3
금융·보험업	-2.1	-0.4	0.7	4.7	5.7	2.9	4.5	5.4	5.2
부동산업	3.5	6.9	6.8	6.4	6.5	10.6	8.6	7.1	7.1
건설업	2.2	0.1	1.3	-0.1	1.4	2.5	1.4	-0.7	2.4

/ 한국은행

서비스업의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대출금이 7조1000억원 늘어 전분기(-2조2000억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황 호조에도 전년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한 자금을 재취급하면서다.

서비스업 대출금은 31조1000억원 증

가해 전분기(+28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업황 개선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 일부 업종의 자금 수요 증가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도·소매업(+7조5000억원)과 숙박·음식점업(+3.0조원) 등의 대출 규모가 확대됐고, 부동산업(+7조1000억원)과 금융·보험업(+5조2000억원) 등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금은 용도별로는 운전자금 증가폭이 25조5000억원으로 전분기(+10조7000억원) 대비 크게 늘었고, 시설자금은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이 24조800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17조3000억원 늘어 모두 증가폭 확대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한국가스공사 엘리펀츠 농구단 인수

9월 중 정식 창단 예정

한국가스공사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농구단을 인수한다.



한국가스공사는 2일 전자랜드 농구단 인수를 통해 B2C 기업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사업과 신성장 사업의 효율적 홍보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스포츠 산업 진흥 및 유소년 농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가스공사 농구단은 오는 9월 중에 정식 창단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이번 농구단 인수를 계기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KBL은 오는 9일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한국가스공사의 전자랜드 농구단 인수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인수 협약 식도 열 예정이다.

전자랜드 농구단은 SK 빅스 농구단을 전신으로 2003~04시즌부터 프로농구에 합류했다. 그러나 모기업의 재정난으로 2020~21시즌까지만 농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KT, 9개 ICT 기업들과 ‘메타버스 원팀’ 결성

딜루션, 버넥트, 코아소프트 등 참여

KT가 대한민국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위해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 ‘메타버스 원팀’을 결성했다고 2일 밝혔다.

메타버스 원팀은 KT를 비롯해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관련 사업을 하는 딜루션, 버넥트, 코아소프트, 위치웍스튜디오, 스마트일게이트스토틀를 비롯한 9개 기업과 국내 VR 및 AR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

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이들 참여기업과 기관은 지속적인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메타버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메타버스 원팀 참여 기업을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KT Enterprise부문 배기동 공간/영상/DX사업 담당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메타버스가 앞으로 핵심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메타버스 원팀 참여 기업들과 메타버스 생태계 확대와 기술 발전, 서비스 발굴 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echo@